

작은 꽃

주요 날짜:

- 3 월 2 일
Soup Kitchen 봉사
- 3 월 9 일
성경모임
- 3 월 19 일
한국 교회의 수호자
복도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 3 월 23 일
예수 부활 대축일
월례회
- 3 월 25 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다음쪽:

월례회
성경모임
한 걸음씩



재속 프란치스코 성 디에고 형제회 소식지

이집트-이스라엘 성지순례

송 향수 레지나, SFO



쿠푸, 카프레, 멘кау레 피라미트에서

3 년 남짓 계속된 형제회의 성경공부팀이 이집트-이스라엘, 구약과 예수님 시대 성지를 직접 확인하자고 의견을 모아 성지순례를 계획하게 되었다. 그러나 22 명의 순례객 가운데 성경공부팀은 고작 4 명이었다. 계획은 인간이 세우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느님이라고 하였던가? 아무튼 함께 못한 분들에게는 여러가지로 애석한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중에도 참으로 소중한 순례여행이 되었다. 하느님께서 글 잘쓰는 은사를 주셨더라면 이 좋은 체험을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그렇지 못함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최대한으로 잘 쓰려고 노력해 본다. 이집트 순례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나이산 등정은 새벽 2 시에 시작되었다. 걸어서 오르는 사람들과 낙타를 타고가는 사람들로 나누었는데, 나는 당연히 낙타팀이었다. 처음 대하는 낙타는 생각보다 키가 커서 꽤나 높은데다가, 후르릉거리는 소리를 내는 품이 심상치 않았다. 안전하게 잘 데려다 달라고 낙타에게 십자성호를 그어 주고는, 가이드가 일러준대로 조심하며, 온몸을 낙타에게 맡기려고 노력하였다. 3,40 분 쯤 지났을까? 사람들도 땀해졌고, 낙타 타는데도 익숙해져서 초롱초롱한 별들과 양쪽 계곡에 아련하게 드리운 산 그림자, 마치 삼각 계곡으로 별빛이 쏟아 부어져 내리는 듯한 하늘을 볼 수 있었다. 하느님의 광기술은 과연 일품이구나!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감탄하면서 그때부터 신부님께서 전날 미사 시간에 하신 말씀을 되새겨 보기 시작한다. “모세의 소명과 나의 소명”. 한참 지나왔는데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저 아름답고 영롱한 별만 보일 뿐이다. 내겐 묵상하는 은사조차 주시길 않았는가 하며, 묵주기도를 드리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기 시작한다. 어둠 속에 펼쳐진 하늘의 아름다운 별들 속에 하느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었고, 나는 그저 그분을 기억할 수 없는 토기장이의 토기, 그것이였다. 처음 순례일정을 시작하면서의 바램은 나의 모든 아픔, 슬픔을 다 떨구고, 하느님을 믿는자의 ‘기쁨’을 맛보자는 것이었다. 나의 아픔을 모두 다 맡겼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낙타등에서의 나의 눈물은 분명 슬픔보다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동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보다는 왜?라며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내게, 주님은 그저 “나는 나다”하신 그분 자체이셨다. 고산증 증세를 느끼며 올라간 시나이산 꼭대기에서 우리들은 장엄한 아침미사를 드렸다.

요르단에서 우리 일행은 크나큰 슬픔을 맛보아야 했으며 변경할 수 없는 일정 탓으로 순례여행은 이스라엘로 이어졌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 어려움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 또 하나의 순례여행이었던 것 같다. 나자렛, 베들레헴, 예루살렘등의 프란치스코 형제회에서 관리하는 성당엔 모두 성지에서만 사용하는 성지수호 십자가가 표시되어 있었다. 성당의 수호자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성인이 술탄을 만났을 때 얻어낸 쾌거이리라. 너무도 자랑스러운 십자가였다. 세례자 요한 탄생기념성당에서는 세례자 요한 진척이를 생각하며 영영 울었고, 주님탄생기념성당에서 드린 미사 중에는 사제의 성체성사 집전으로 크나큰 은혜를 받았다.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성 디에고 형제회

월례회:
매달 4 번째 주일
오후 2 시 30 분
St. Columba 성당
3327 Glencolum Drive
San Diego, CA 92123

전화:
(858) 484-1943

E-MAIL:
oh_younghoon
@yahoo.com

‘작은꽃’에 관한 문의:

전화:
(858) 618-1164

E-MAIL:
kwon_youngwan
@yahoo.com

을 만난 것이다. 어린양을 잃고 슬퍼하는 사제의 아픈 마음과, 무거운 침묵과 슬픔 중에 이어진 우리의 순례는, 사제의 손으로 축성되는 성체성사로 인해 또 다른 기쁨이랄까? 환희 또는 표현 못할 어떠한 힘을 얻는듯 했다. 그 감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려움 중에도 양들을 보살펴야하는 목자의 모든 고통은 이 성사로 인해 승화되어지는 듯 했다. 이것이 사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아닐까?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천상의 성인보다 먼저 사제에게 인사를 올린다고 하셨던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숫가. 그곳에서 받은 보속은 요한 복음 15 장. 나는 썩지 않을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였다. 고통의 잔을 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의 기도문’. 이 기도는 주님의 온 생을 녹아 넣은 혼신의 기도이리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길, 14 처 기도의 길. 예루살렘 성 밖에서 바라볼 때는 가까운 거리같이 생각되었는데, 실제로 걸어보니 꽤나 먼 길이였다. 이길을 주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셨지. 그리고 마지막 날 새벽에 우리 예수님 무덤성당에서 여러 사제들과 주교님과 함께 라틴미사를 봉헌하였다. 너무도 여러곳에서 예수님의 체취를 느낄 수 있었고, 소중한 목상들을 할 수 있었다. 우리를 안내해 주셨던 각 나라의 현지 가이드들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는 성경의 골격과 흐름을 아주 잘 정리해 주셨다. 이제 다시 성경을 읽을때는 한결 가까이 그 내용이 다가올 것이다. 우리 형제회원 모두가 기회 있을때 마다 이런 순례 여행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길 기도드린다.

월례회



반갑습니다!

지난달 18 일 형제들이 또 반갑게 모였습니다. Mark 수사님께서 당일 2 독서를 주제로 ‘무엇이 그리스도를 갈라지게 하는가’에 대한 토의로 시작해 주셨습니다. 계속하여 휴식, 각 반별 양성이 진행되었고 성무일도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성경모임 - 코헬렛, 아가

모든것은 허무이다. 코헬렛은 인생을 통하여 원하는 것, 부와 지식, 명성과 권세 모든것을 누려 보았으나 그의 영혼은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보다도 우리 인간의 욕심이 더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 한 복판 안에서 조그마한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성취를 인생의 목표로 두지 말고, 하는일 자체를 즐기라고 코헬렛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Song of songs(노래중의 노래)라 불리는 아가서는 전편을 통해 하느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속에 품은 뜻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사랑(만남의 기쁨, 이별, 그리움, 반성),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이스라엘신부, 깊은 관계)이라는 틀을 놓고 이해하도록 권장합니다. [어거스틴 정리]

사순(Lent)이란 말은 본래 40 일이라는 뜻으로, 이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수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스도 고통에 참여하는 시기입니다. 사순시기는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되어 성목요일 주의 만찬 저녁 미사 시작까지이고, 이 기간 중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은 사순시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주일 중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주일입니다. 그럼 1 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거룩하게 지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교회는 성주간과 예수 부활 대축일을 1 년 중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시기로 지냅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부활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성주간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1 년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주간이 신앙인의 삶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큼니다. 성주간은 부활 대축일 전 한 주간을 말하며 예수 수난과 부활의 신비에 참여하는 가장 거룩하고 뜻깊고 중대한 기간입니다. 성주간의 마지막 3 일인 성목요일·성금요일·성토요일은 특히 ‘성삼일’로 불립니다. 이 주간이 성주간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삼일 때문입니다.